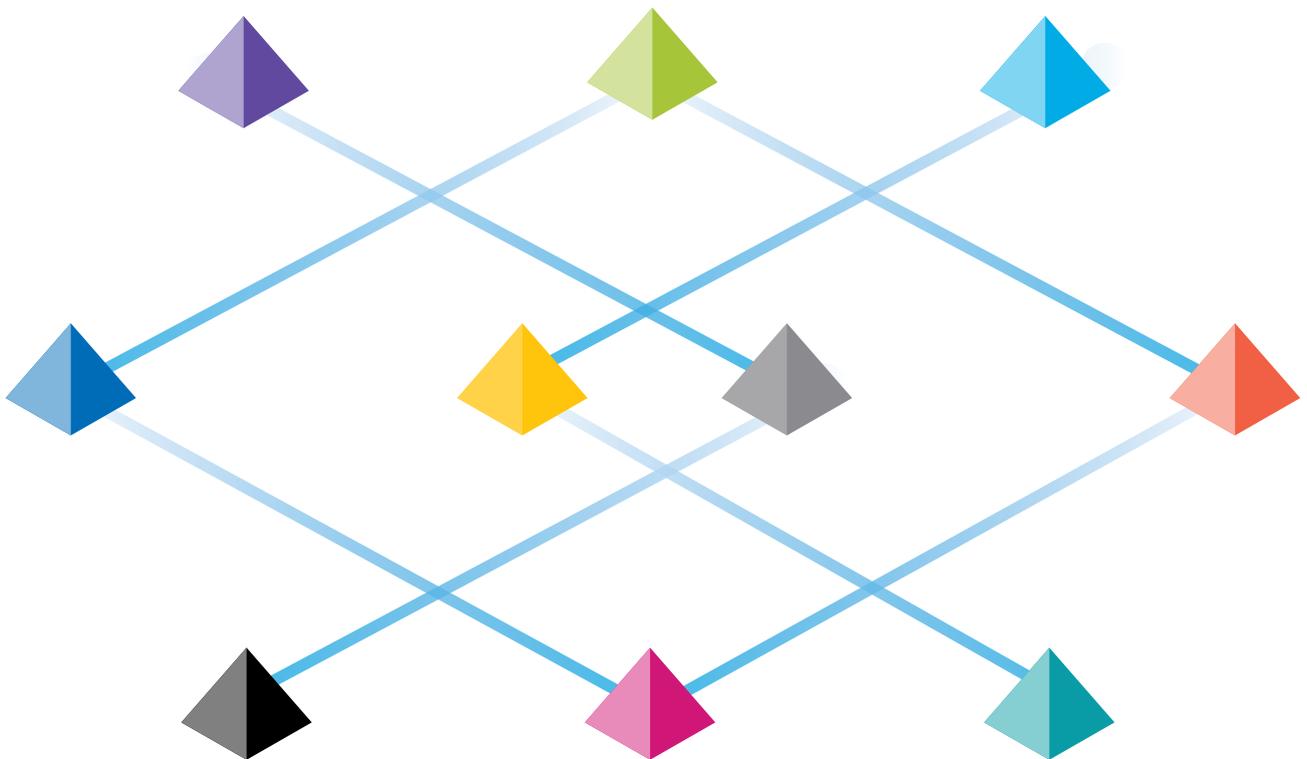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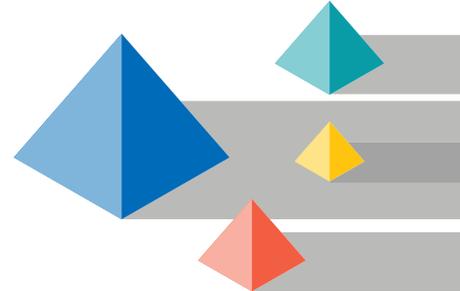
성공적인 RPA 여정을 위한 9가지 체크리스트

프로세스 표준화와 플랫폼화 전략



성공적인 RPA 여정을 위한 9가지 체크리스트

프로세스 표준화와 플랫폼화 전략



<p>목 차</p> <p>CONTENTS</p> <p>성공적인 RPA 여정을 위한 9가지 체크리스트</p>	<p>RPA 프로젝트 도입은 성공, 확산에 실패하는 이유</p> <p>P. 02</p>	<p>프로세스 표준화와 플랫폼화</p> <p>P. 04</p>	<p>기업형 RPA의 특징</p> <p>P. 06</p>	<p>RPA 여정을 위한 9가지 체크리스트</p> <p>P. 10</p>
--	--	------------------------------------	---------------------------------	--

RPA 프로젝트 도입은 성공, 확산에 실패하는 이유

지난 4~5년 간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는 뜨거운 화두였다. RPA는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처리하던 일들을 자동화함으로써 디지털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꿈꿨던 많은 기업들이 RPA 도입에 나선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부푼 가슴을 안고 RPA를 도입했던 기업들로부터 기대 이하였다거나 시간이 갈수록 관리하고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RPA 구축 프로젝트를 통해 몇몇 봇을 구축하긴 했으나 더이상 확장되지 못하고 아주 좁은 영역에서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정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조직 전체의 혁신으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RPA를 도입한 많은 기업들이 데스크톱 자동화(태스크 자동화)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데스크톱 자동화는 개인의 업무나 개별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업무 중에는 반복적으로 애플리케이션에서 몇 개의 필드를 복사해서 엑셀에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매번 이런 단순노동을 수작업으로 하는 것은 속

도도 느리고 실수를 할 수도 있다. 데스크톱 자동화 툴을 이용하면 로봇이 자동으로 애플리케이션에서 원하는 필드를 스크랩해서 자동으로 엑셀에 붙여넣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직원의 업무 부하를 줄이고 작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사람의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그런 점에서 데스크톱 자동화는 이제 막 자동화를 도입하기 시작한 조직 입장에서 보면 훌륭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RPA는 아니다. RPA는 단순히 개인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넘어서 조직 전체의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데에 목표가 있다. 데스크톱 자동화는 대체로 부서 차원에서 자동화를 꾀한다. 이 경우 부서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만 자동화를 고민하게 되고, 디지털 워커가 프로세스를 담당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재구성하기 보다는 개별부서 혹은 직원 개인의 업무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동화를 추진하게된다.

RPA라는 새로운 기술을 기존 프로세스에 끼워 맞추게 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프로세스 혁신은 요원해진다. 또 툴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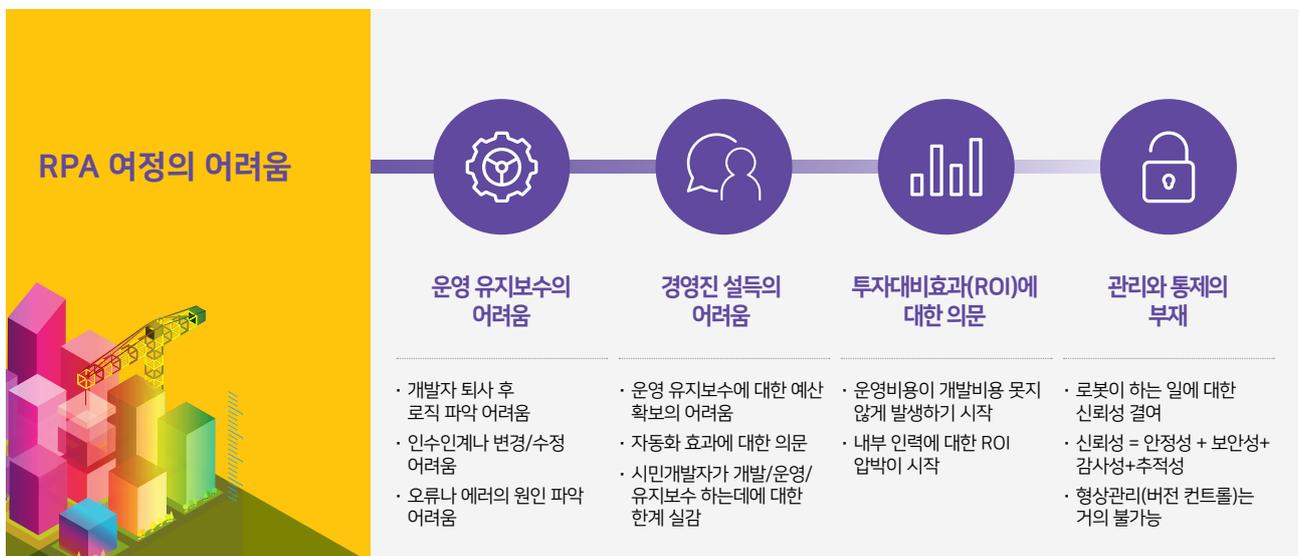
선정하게 될 때도 확장성이나 발전보다는 당장 눈앞의 유저 인터페이스(UI)나 개발 편의성에만 주목하기 마련이다. 결과적으로 직원 개인 관점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심지어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온 태스크 자동화는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도입 이후 오히려 관리 업무가 증가하고 예상치 못한 운영 비용이나 유지관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RPA 프로젝트의 실패 사례를 들여다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프로세스 표준화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업무 자동화에 나서는 경우다. 직원 개인의 특정 업무를 자동화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마이크로 혁신이 서로 연결되어서 조직 차원의 매크로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수 없다. IDC는 이와 같은 현상을 '혁신 섬'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대출 업무에 RPA를 도입한다고 하자. 태스크 자동화만으로도 대출 신청을 받는 업무에서는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서류를 만들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업무를 사람 대신

봇이 자동으로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출 승인이나 처리 과정까지의 복합적인 과정까지 RPA를 활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다른 부서와의 다양한 시스템들과의 연결이 필수적이며, 다양한 소스에서 산출되는 데이터를 통합해야 한다. 현재 RPA를 도입한 기업 중 상당수는 여기까지는 진화하지 못했다. 물론 단순히 대출 신청만 자동화해도 직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일 것까지는 없다. 하지만 기대했던 디지털 혁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예를 들어 새로운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입사한다고 가정하자. 신입 직원이 채용되면 재무부서는 급여나 복리후생, 4대 보험 등의 업무를 처리할 것이다. 총무나 구매부서에서는 컴퓨터나 책상 의자와 같은 비품을 준비해야 하고, 보안부서는 ID 카드를 만들어 등록해야 하며, 전산팀은 각 업무 시스템에 그의 계정과 권한을 만들어야 한다. 이처럼 신입사원 한 명이 입사해도 조직 전체가 움직이게 된다. 신입사원 입사라는 이벤트를 자동화하기 위해 각 부서의 각 담당자들이 각각 봇을 만든다면, IDC가 말한 '혁신 섬'에 갇히게 된다.



프로세스 표준화와 플랫폼화

프로세스가 자동화된다는 것은 기존의 사람이 처리하던 모든 프로세스를 디지털 워커가 대신해서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단위 업무의 자동화 부분들을 모아서 디지털 워커가 독립적으로 대신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프로세스가 디지털 워커를 위해 바뀌어 플랫폼화 되어야 한다는 애기다. 필요에 따라 해온 일의 순서와 주체가 변경되고, 때로는 현업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소재가 재정비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바로 프로세스 혁신이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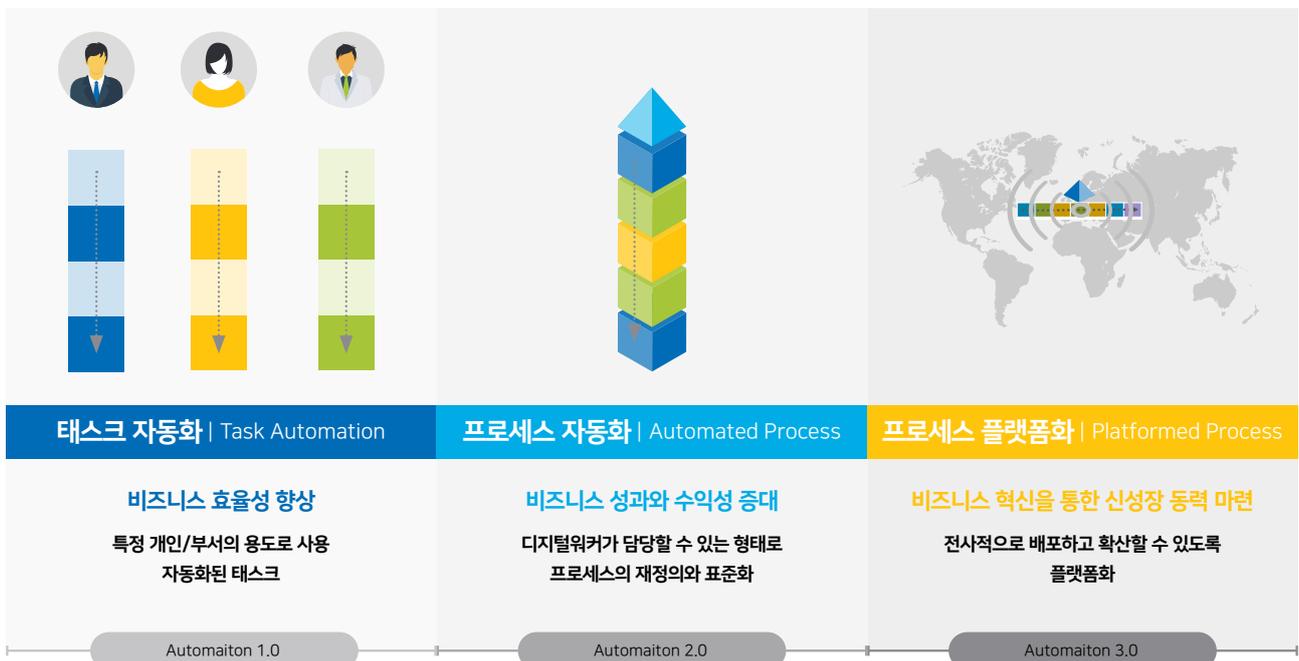
이렇게 디지털 워커가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사람이 더 이상 관여할 필요가 없어지면 그 프로세스를 표준으로 정립해야 한다. 이렇게 표준화하고 플랫폼화하는 이유는 확산이 쉽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표준화해서 배포를 쉽게 만들면 플랫폼화가 가능하다.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하고 필요한 이용자가 내려 받듯이, 표준 프로세스를 포털에 등록하고 필요한 이용자가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표준 프로세스를 만들지만 하면 RPA의 플랫폼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본사의 표준 프로세스를 담은 봇을 계열사나 해외 지사에 그대로 배포한다고 해서 곧바로 이용할 수는 없다. 각 현지의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계열사나 지사에서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변경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적 요소들이 함께 배포되어야 한다.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플랫폼화 하면 프로세스의 일부가 변경되거나 다른 조직에서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손쉽게 수정하고 업데이트해 적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자동화함으로써 비즈니스 혁신 기반을 확보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

뉴욕에서 설립된 한 유명 보험회사는 본사에서 표준 프로세스를 만들고 전세계 지사에 이 프로세스를 배포하는 방식의 RPA 플랫폼화를 이루었다. 뉴욕 본사에서 프로세스를 연구해서 PDD(Process Defined Document)를 만들어 국가 별로 배포한다. 각 지사에는 RPA CoE(Center of Excellence, 전문가 조직)가 존재한다. 각 지사의 CoE는 PDD의 가이드에 따라 오브젝트 객체를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서 CoE는 국가별 언어 환경이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나 국가의 규제나 보안 규정이 뉴욕과 달라서 발생하는 차이, 독자적인 IT 로직이 존재하는 경우 등에 대처한다.



화이자라는 신약 개발시 부작용 사례 등 관련된 전문자료를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을 써왔다. 이 업무는 고도로 숙련된 메디컬 디렉터라는 직군에서 진행했는데, 이들은 여러 부서와 협업하면서 방대한 문헌과 논문 자료를 모으고 검토해야 했다. 메디컬 디렉터들의 신약 개발 검토 업무에 RPA를 도입해 디지털 워커를 구현하면서 자료나 참고문헌 검색과 수집, 판독, 분석하고 걸러내는 프로세스 등을 재구성하고 표준화해 자동화할 수 있었다.

디지털 워커는 홍보 요청 시스템에 접속해 의료 활동 검토용으로 제시된 정보를 검색해 참고 문헌을 수집한 뒤, 광학문자인식(OCR)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모두 디지털화한 후 텍스트마이닝 등의 자연언어처리(NLP) 기술을 통해 메디컬 디렉터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낸다. 이제 메디컬 디렉터는 이렇게 RPA로 얻은 자료들을 기반으로 토의하고 분석해서 신약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자료수집과 정리 과정을 모두 디지털 워커가 대신함에 따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이에 더해 화이자라는 전세계 35개 넘는 연구개발센터에 본사에서 만든 표준 프로세스를 배포, 확장해 전 제품군에 적용하고 있다.

1872년 스위스에서 설립, 현재 215국에서 5만50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취리히보험사는 무려 8년에 걸쳐 자동화를 통한 프로세스 혁신 여정을 추진했다. 이 보험사는 처음부터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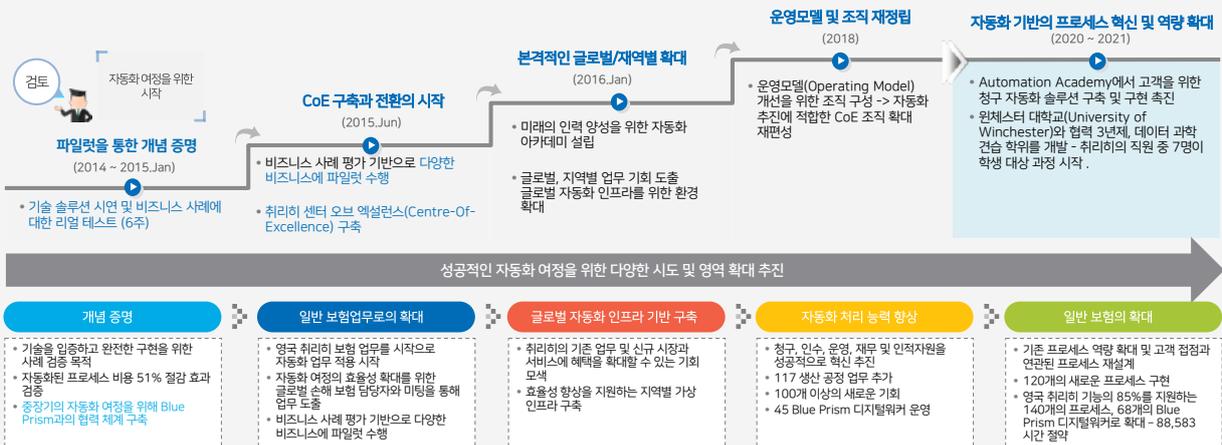
표준화에 목표를 두고 자동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진출해 있는 국가와 지역마다 프로세스가 서로 달라 업무 복잡성이 커지면서 누적되는 비효율성을 견어내 글로벌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원활한 협업이 가능한 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지난 2014년 프로젝트 본격 돌입에 앞서 취리히보험은 역량 내재화와 자동화 개념 증명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차례 실시했다. 단기간에 기대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태스크 자동화를 먼저 시작했다. 다만 단순 기술 시험보다는 비즈니스 사례를 검증하는 목적으로 추진했고, 중장기 자동화 여정을 단계별로 구현하고 확장해나갈 수 있을지 검증하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이 때에 자동화 여정에서 필요한 9가지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수행했다.

본격적인 자동화 구현을 위해 먼저 취리히 CoE를 구성해 보험 업무에 자동화 업무를 적용하기 시작해 10여차례에 걸친 자동화 프로젝트를 꾸준히 수행하며 업무 범위는 물론, 글로벌 조직 전체로 확장했다.

앞서 언급했듯 RPA의 완성은 표준화와 플랫폼화에 있다. 개별 업무 자동화는 기업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지만, 이같은 반복 업무에 대한 자동화를 구현한다 해도 표준화와 자산화가 필요하다. 표준화와 플랫폼화를 통한 확장성과 신뢰성을 갖춰 프로세스 자동화, 프로세스 혁신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자동화 여정의 사례



기업형 RPA의 특징

데스크톱(태스크) 자동화를 넘어 진정한 RPA를 이루기 위해서는 RPA 소프트웨어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시장에는 데스크톱 가상화 수준의 제품을 RPA로 포장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진정한 RPA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갖춰야 할 기능이 있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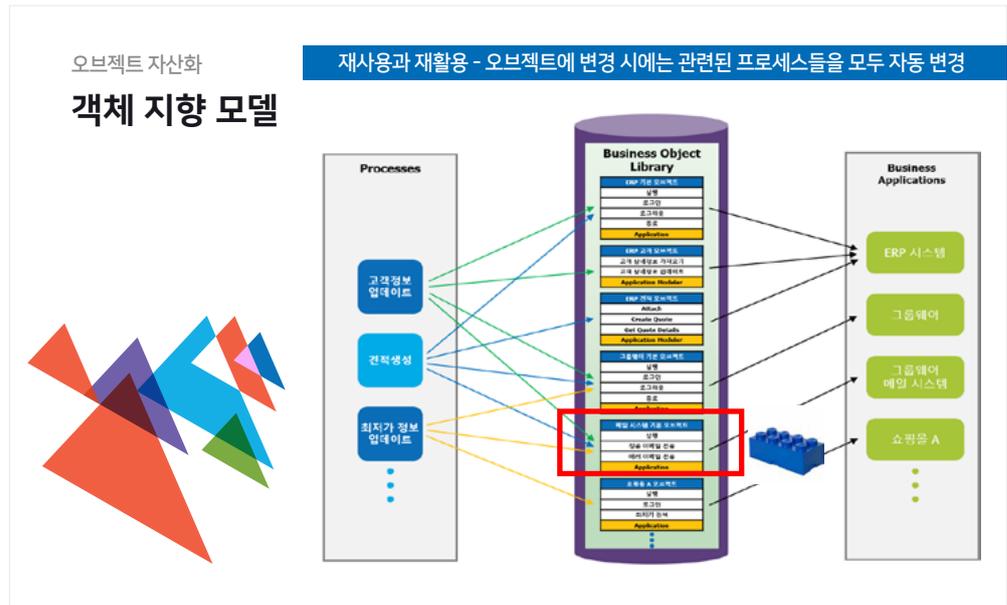
객체지향모델

RPA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표준화다. 표준 프로세스를 만들어 그 표준을 필요로 하는 부서, 계열사, 지사 등에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표준 프로세스를 배포하되 이를 도입하는 현장의 환경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기술적 도구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객체지향모델이다. 블루프린즘은 이를 위해 오브젝트(Object)와 프로세스(Process), 두 개의 개발 스튜디오를 제공한다. 운영 중에도 바뀔 일이 별로 없는 IT 로직을 위한 스튜디오와 운영 중에도 수시로 바뀌는 업무 로직을 개발하는 스튜디오가 구분된다. 애플리케이션하고 상호작용하는 IT 로직은 최대한 표준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로그인을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SAP 로그인을 표준 프로세스로 만들어 놓으면 재무부, 인사부, 자재관리, 물류 부서 등 다양한 부서에서 이 표준 프로세스를 이용해 로그인을 할 수 있다. 이 표준은 기업의 지적 자산으로 남는다.

블루프린즘의 특징은 IT 로직과 업무 로직을 구별한다는 점이다. 둘을 하나의 공통 표준 모듈로 만들면 모듈 단위가 커지고 복잡해진다. 그리고 재활용하기 어렵다. 인사부에서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 만든 업무 로직은 다른 부서에서는 사용할 일이 없다. IT로직과 업무 로직이 통합돼 있으면 개발과 인수인계도 어려워진다. 한 번 만든 IT 로직의 오브젝트는 어느 국가에 있는 지사나 계열사에서든 그대로

로 가져와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표준화를 구현한 오브젝트가 변경되면 프로세스도 자동 변경된다. 따라서 업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자동화 프로세스를 변경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오브젝트 기반 자동화 프로세스 설계는 표준화를 강제하는 동시에 전사 확산과 글로벌 프로젝트 확장이 쉽게 이뤄질 수 있게 한다. 이는 RPA 운영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인력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 기업의 ROI 성과 지표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02

형상관리기술

형상관리란 변경사항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추적,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RPA 도입할 때 형상관리까지 고민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하지만 자동화된 프로세스가 늘어날수록 표준화 못지 않게 형상관리의 중요성이 커진다.

데스크톱 자동화 수준의 툴들은 개발이나 운영 과정이 모두 PC에 저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PC마다 여러 버전의 개발 산출물이 산재하게 되고, 유지보수가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별도의 형상관리 툴(SVN, TFS, GIT)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개발자의 PC에 일단 저장이 되고 이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형상관리가 이뤄진다. 형상관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개발자 간 협력과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통합적인 형상관리는 어렵다.

블루프린즘은 개발 과정이 개발자 PC에 저장조차 되지 않도록 했다. 개발 과정은 모두 중앙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일이 없다. 이렇게 구현한 이유는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생산성과 효율성, 그리고 확산 용이성 때문이다.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버전 관리가 되지 않으면, 운영 및 유지보수도 힘들고 확산하기도 어려워진다. 블루프린즘의 접근처럼 모든 버전에 대한 컨트롤이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면, 누가 어떤 부분을 변경했는지, 어떤 오브젝트가 어떠한 프로세스에 사용됐는지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이 용이하고 현재 버전이 최종 버전인지 확인하는 것도 쉽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아진다.

03

애플리케이션 인식기술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미지 캡처(서피스 모드)를 해야만 하는 경우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이 경우 애플리케이션 버전이나 화면의 위치가 바뀌는 등의 변화가 생길 때마다 다시 개발해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블루프리즘은 22년의 RPA 업력을 통해 세계적인 소프트웨어들의 다양한 형태의 엘리먼트 자동 인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같은 애플리케이션 인식 모드는 윈도우(Win32)를 비롯해 AA(Microsoft Active Accessibility), 자바, 메인프레임, 서피스 자동화(Surface Automation), 웹(HTML), SAP, 시트릭스, UIA(UI Automation) 등을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블루프리즘은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광범위한 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데이터를 이미지 캡처 방식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스파이(Spy) 기반의 다양한 커넥터를 활용해 자동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해냈다.

애플리케이션 인식 기술

다양하고 포괄적인 인식 모드를 갖추고 있어야 함

<p>Win32 Windows 프로그램의 기본 스파이 모드입니다. 다른 Mode의 어플리케이션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p> <p>UIA User Interface Automation mode로 WPF(Windows Presentation Foundation)를 지원하는 운영 체제의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통합을 제공합니다. 다른 모드에서 인식이 안될 경우 활용.</p> <p>Java JAB(Java Access Bridge)를 이용하여 JRE(Java Runtime Environment)를 사용하는 Java 애플리케이션과 통합을 제공합니다.</p> <p>M/F OpenText HostExplorer, IBM PCOMM, Micro Focus Attachmate Extral, Micro Focus Rumba 등과 같은 메인프레임 애플레이터와의 통합을 제공합니다.</p>	<p>HTML HTML / Chrome / Edge /Firefox 를 통해 웹 애플리케이션과 통합할 수 있습니다.</p> <p>AA Accessibility Mode는 Microsoft AA(Active Accessibility)를 사용하여 Microsoft Windows 환경에서 실행되는 많은 응용 프로그램 유형과 통합을 제공합니다.</p> <p>SAP SAP 스크리핑을 사용하여 SAP UI와 통합을 제공합니다.</p> <p>Citrix Citrix VDE(Virtual Desktop Environment) 에서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과의 통합을 제공합니다.</p> <p>Surface 여러 Spy Mode와 통합되지 않는 환경의 애플리케이션을 Image 인식과 좌표 방식으로 통합을 제공합니다.</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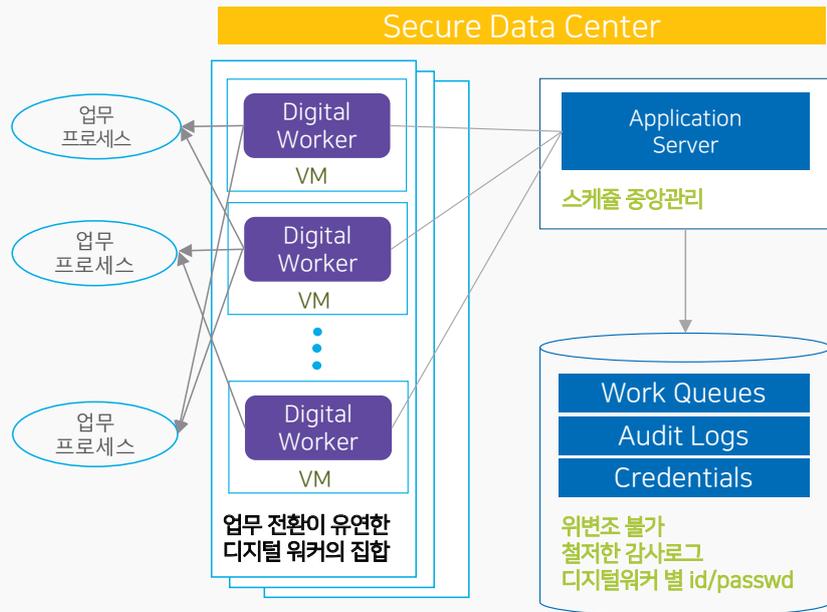
04

철저한 중앙 통제

데스크톱 자동화 수준의 단순한 RPA 툴은 자동화 과정을 개별 PC에서 처리하고 저장한다. 로봇이 무슨 일을 했는지 중앙에서는 알기 어렵다. 각 담당자마다 사일로화 된 업무 프로세스로 인해 복잡성이 가중된다. 반면에 블루프리즘이 제공하는 기업형 RPA, 엔터프라이즈 자동화 플랫폼은 디지털 워커 및 모든 데이터를 중앙의 데이터센터에서 운영하고 관리한다. 중앙의 관리자가 디지털 워커별로 아이디(ID)를 발급하기 때문에 조직 전체 자동화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 프로세스 및 오브젝트에 대한 변경 및 수정 사항을 모두 기록하고, 소스코드 외 블루프리즘 클라이언트에서 수행한 기타 활동 역시 감사를 위해 기록한다. 누가, 언제, 어떠한 변경을 했는지 등이 모두 로그로 남는다. 이로 인해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철저한 모니터링, 감사와 추적이 가능하다.

Enterprise Automation (RPA)

디지털 워커 및 모든 데이터를 안전한 데이터센터에서 운영 및 관리
디지털 워커별로 아이디 부여하고 중앙에서 관리



05

**개발/변경/
디버깅 방식**

데스크톱 자동화 수준의 단순 RPA 툴들은 주로 스크립트(코딩) 방식으로 개발하고 변경과 디버깅을 수행한다. 일부 개선된 툴들도 개발시 워크플로우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변경이나 디버깅이 이뤄질 때는 정작 스크립트를 열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일반 현업 사용자는 스크립트를 보고 어떻게 프로세스가 구성돼 있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또 이 방식으로는 업무가 바뀌면 변경과 수정이 어렵고 인수인계 역시 험난하다. 표준화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사용도 할 수 없다.

반면에 블루프리즘은 스크립트가 아닌 워크플로우 방식으로 모든 개발과 변경, 디버깅이 이뤄지도록 한다. 즉 순서도를 기반으로 수행할 수 있다. 더욱이 오브젝트 기반으로 개발돼 직관적이다. 이는 스크립트 방식의 개발이 가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다. 이렇게 구조화되고 시각화된 개발방식은 현업 사용자도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과정에 참여하기가 쉽고, 변경이나 수정도 용이하며 인수인계를 받은 사용자도 프로세스 전반을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운영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성공적인 RPA 여정을 위한 9가지 체크리스트

많은 기업들이 RPA를 처음 도입할 때 UI가 편하고 개발이 쉬운 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성공적인 RPA 도입과 운영, 확산으로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욱 많다. 앞서 언급한대로 RPA가 프로세스 표준화와 확장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데 충분한 기술과 개발 방법을 지원하는지, 또 쉽게 재사용할 수 있는지, 개발 과정에서 형상관리가 용이한지, 폭넓은 애플리케이션 인식 기술을 지원하는지, 자동화에 대한 통제·추적·감사 기능은 제대로 지원하는지, 프로세스 변경과 디버깅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등은 필수 고려사항이다.

또한 초기 자동화 프로젝트를 넘어 성공적인 RPA 운영·확산을 위해서는 ‘역량 내재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고 이행해야 한다. 여러 차례에 걸친 파일럿 프로젝트와 약 3~4개월 간의 교육, 실전 경험, 개발 참여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개발 및 운영 역량 내재화 토대를 구축하고 쌓아 나가야 한다.

RPA 도입은 외부 전문가 한 두 명으로 끝낼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 는 점에서, 외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도 여러 방면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모여 RPA CoE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기업 내부에 프로세스 혁신을 주도하고, RPA 개발과 운영, 유지보수를 전담할 전문가가 없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업의 자동화 여정은 성공하기 어렵다.

	표준화(거버넌스)	확장성(배포와 재사용)	신뢰성(보안/안정/추적/감사)
UI/개발이 쉬운가?	?	?	?
질문을 바꾸어야 할 때			
개발 방법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기에 용이한가?	○	○	
재사용과 재활용이 쉽고 편리한가?	○	○	
개발 과정에서의 형상관리(버전 컨트롤)가 용이한가?	○	○	○
자동화된 프로세스에 대한 형상관리(버전 컨트롤)가 용이한가?	○	○	○
다양하고 폭 넓은 애플리케이션 인식 기술을 제공하는가?		○	○
프로세스 및 로봇의 관리가 쉽고 편리한가?		○	○
자동화에 대한 통제, 추적, 감사가 용이한가?		○	○
프로세스 변경이 쉽고 빠른가?	○	○	○
에러 디버깅이 쉽고 빠른가?	○	○	

블루프리즘코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29, 산학협동재단 12층
 전화: 02-6203-3950 이메일: info@blueprism.kr 홈페이지: https://www.blueprism.com/ko/



바이라인네트워크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5길 30 2층
 전화: 02-761-1928 이메일: byline@byline.network 취재/글: 이유지 기자 yjlee@byline.network, 심재석 기자 shimsy@byline.network
 Copyright © 2022 BylineNetwork

